

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1A 세션 - 마태복음 I 소개: 기원, 정경, 구조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터너이고, 1A 강의입니다. 이 복음서에 대한 첫 번째 테이프 강의입니다. 모든 테이프를 작업하면서 신학교에서 받았을 보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는 보충 자료와 개요가 있는데, 이는 그가 대부분의 강의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훌륭한 책을 따라가고 직접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보충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1A 강의에서 몇 가지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다지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페이지를 따라가세요. 원하시면 그 페이지에 메모해 두세요.

마태복음의 기원. 마태오 복음서의 기원은 마태오의 익명성 때문에 쉽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의 저자, 수신자,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는 오직 교육받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책, 문법, 구문, 문학적 스타일, 그리고 행간을 읽어서 각 책의 독특한 주제를 연구하여 형성된 가설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교부 전승, 즉 초기 교부들의 전승과 그러한 연구 방식을 주목함으로써 말입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마태복음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이는 이 점에서 현대적 사고방식과 상반됩니다.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음, 잠깐 저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은 익명이지만, 서기 2세기 1/4분기에 사도 마태의 서기관이 쓴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가까웠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저는 이 용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아드(ad)"나 "주님의 해"라고 말할 때, "그때가 가까웠다"는 의미는, "그때가 바로 그 때였다"는 의미인데, 이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서기 2세기 초에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의 저작으로 여겨지며, 서기 2세기 1/4분기에 마태가 저술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고대 사본들에는 사도 마태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교부이며, 전승들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Ecclesiastical History) 3장 39절에서 2세기 초의 파피아스를 인용하고,

유세비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인용합니다. 6장 14절에서 클레멘트는 3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유세비우스와 그의 『교회사』 (Ecclesiastical History) 6장 25절에서 인용된 오리게네스는 3세기 중반의 오리게네스를 가리킵니다. 파피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모두 사도 마태가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라고 확인합니다.

기원후 2세기 후반 이레네우스의 말은 에우세비우스와 일치합니다. 4세기의 이 추가적인 증언은 예루살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롬은 이 교부 전승이 마태오 복음서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나중에 정경성과 본문 역사에 대한 주석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교부들의 증언은 차치하고라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유대적 성향에 이끌려 저자가 유대계 기독교인이었다고 결론짓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역사적으로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유대적 요소가 이방인 저자가 유대교에 대한 논쟁을 위해 만들어낸 문학적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책의 날짜입니다. 교회에 마태오에 대한 암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통 기원 1세기 후반과 2세기 초반에 살았던 이그나티우스 신부. 또한 공통 기원 2세기 초반의 교부 문서인 디다케라는 문서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환상은 우리가 바로 직전에 언급한 파피아스의 증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오가 2세기 초반에 잘 알려져 있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차례는 늦어도 1세기 복음서를 썼음에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복음서 관계에 대한 우선권 관점에 기초한 현재의 합의는 마태오의 기원을 공통 기원 80년대 또는 90년대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올해 마태오 24-25장이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사건 이후의 예언이라는 생각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인, 죄송하지만 공통기원 70년경에 쓰인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실수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야니아에서 시작된 발전하는 교회의 상황이

반면에, 만약 누군가가 그 날짜의 사도적 저자에 대한 교부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더 일찍 말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제가 마태복음 24-25장을 예수로부터 전해받은 정통한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사건 이후의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서의 날짜를 70년 이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에 의존한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른 날짜를 정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서기 70년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주목할 만한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Craig Blomberg, Don Carson, Robert Gundry, Gerhard Meyer, Beau Ryka, JAT Robinson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자들은 그 책의 날짜에 대해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수신자와 배경, 마태복음의 특징, 히브리 성경에서 인용한 성취 공식,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기 위해 오셨지만,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에 대한 그의 설명은 마태복음의 모든 학자가 이 복음서들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불과합니다. 유대교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일부는 마태복음 공동체가 많은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회당과 분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건드리와 스탠턴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른 이들은 마태복음 공동체가 대부분 유대인이며 여전히 회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해링턴, 오버먼, 살바레니, 시걸, 심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마태복음은 예수가 공격하는 대상인, 즉 회당을 떠나는 마태의 동족, 즉 전투에 휘말린 소수 집단의 배경에서 볼 때만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그너는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마태 공동체가 여전히 회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견해가 채택되었습니다. 오버먼 쉘버라니와 심 같은 학자들은 제 생각을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 이 주장을 펼쳤으며, 이 주석서는 아마도 이 점을 가장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으로, WD 데이비스와 데일 앨리슨이 쓴 3권짜리 방대한 저서인 국제 비평 주석 시리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책입니다.

많은 시리즈가 제안되었지만, 마태 공동체의 위치는 거의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티오크라는 도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티레나 시돈, 킬패트릭, 갈릴리, 오버먼, 심지어 요르단 강 유역의 펠라, 슬링거랜드라는 사람이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원래 수신자들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기록 배경과 목적은 그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마태복음에서 추론된 가설을 통해서만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듯이 독자층이 기독교-유대교 공동체라고 가정할 때, 이 공동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성취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토라를 어떻게 해석했는지(5:17)와 타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왜 뿌리 깊은 비기독교 유대 지도자들을 더 이상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23장) 알아야 했습니다.

공동체는 또한 이방인 선교라는 단어를 넓힐 필요가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마태는 이방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방인 여성들이 언급될 때(1:3, 5, 6), 그리고 이방인들의 얼굴이 강조될 때(8:10, 15:28, 27:54)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독자에게 공동체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절정의 사명(28:19)을 준비시켜 줍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적 강조점을 다룬 다음 논의는 복음서의 본래 목적에 대한 추가적인 함의를 제공합니다. 이제

1A 강의에서 두 번째 주요 쟁점인 정경성과 역사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파피아스의 증언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역사의 근본적인 의문은 가능한 한 명확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썸어 본문으로, 나중에야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마태 교부 자료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저는 이전 저자론 논의에서 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초기의 본문은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 33장 39절 16절인데, 이 본문은 마태가 수집한 예수에 대한 신탁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파피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신탁들을 해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파피아스(Papias)입니다. 실례합니다만, 유세비우스, 언뜻 보기에 파피아스(Papias)를 인용한 내용은 마태복음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후대 사람들이, 아마도 그 히브리어 원본을 번역하여 우리가 읽는 그리스어 복음서로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는 그리스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 원본을 번역한 것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복음서와 그리스어 복음서를 모두 썼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파피아스(Papias)가 현대 문헌 비평가들이 '파피아스'라고 부르는 예수의 신탁이나 말씀, 또는 심지어 우리가 읽는 그리스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본 교체의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소위 히브리어 사본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파피아스에 의해 언급되는데, 군드리와 같은 사람들도 이러한 이유와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히브리어 방언에서 그 용어가 실제로 히브리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문체나 수사학적 스타일을 제시했고, 경건한 사람들은 각자가 그것이 번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그것들을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파피아스는 마태의 문체가 유대적이었고, 후대 사람들이 이 유대적 문체를 최선을 다해 해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매튜스의 가계와 형식에 대한 강조와 같은 특징은 그의 유대적 작곡 스타일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어 사본에 관한 한, 마태복음의 문헌적 역사를 살펴보면 20개가 넘는 언셜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들에는 마태복음의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본문이 들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있는데, 알레페 와 B로 약칭되어 있고, 코텍스, C, D & W, 코텍스 시그마가 있다. 그 외에도 코텍스 0211, l, k, m, uv, 델타 베타, 파이, 오메가가 있다.

이것들은 일부에 불과하며, 마태복음의 일부를 포함하는 다른 사본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P 64와 P 67, P 77, P 1, P 45, P 53, P 70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본들은 언셜체 사본보다 다소 이전 것입니다. 다만 언급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파피루스와 개봉된 사본 외에도 이러한 사본들은 더 단편적입니다. 따라서 기술을 증명하는 수백 개의 작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교부 자료에서 많이 인용되고 교회의 성서 일과표에서 자주 사용되며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다른 초기 버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본문 역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본이 매우 많습니다.

마태복음의 정경성에 관해서는, 초기 교회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복음서였습니다. 정교회 신자들 사이에서도 정경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는 교회의 동서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세기 중반, 이단자

마рки온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마태복음은 물론 구약,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일반 서신들을 포함하지 않는 정경을 고수했습니다. 마рки온은 구약과 신약을 서로 다른 두 신의 계시로 보는 일종의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마태오가 예수님에 의한 구약의 성취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рки온은 루가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편집본만을 자신의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기 정경에 대한 그의 공격은 이후 정경의 정형화 과정의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인용된 교부 자료 외에도, 루가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의 소위 반마рки온주의 서문과 모라토리엄 단편은 엉터리입니다. 두 자료 모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중복음서, 즉 교회 전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레네우스의 저서 『이단에 맞서』(3.11.8 키르피우스), 그의 서신 73:10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3.13, 그리고 다른 교부 자료들을 살펴보면 마태오 복음서의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지치셨을 텐데, 이번에는 마태복음이 문학 작품으로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보다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의 세 번째 주요 주제인 문학적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문맹인 질문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복음서란 무엇일까요? 역사와 신학을 모두 담고 있는 복음서의 장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의 역사성을 확증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된 변증론적 우려 때문에,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때때로 복음서가 신학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을 꺼려 왔습니다. 이는 복음서를 예수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전통을 전달하기보다는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상상의 문서로 보는 경향이 있는 자유주의 학계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학계는 역사적 예수보다는 서기 70년 이후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논쟁을 반영하는 복음서 이야기를 실제로 발견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방식의 한 예가 우리 참고문헌에 있는 FW Bair의 주석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크레이그 블롬버그의 1987a라는 제목의 저서와 같은 사람들처럼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을 옹호하는데 정당하게 대응했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복음서의 신학적 중요성이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때때로 잘못된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가 단순히 역사를 제공할 뿐이며, 신약 서신, 특히 바울 서신에서 신학을 얻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대 신학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술하지만, 신학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서문에 따르면, 누가는 구전과 기록된 전승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밀한 역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서문에서 데오빌로가 예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절차는 예수 전승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청중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승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는 선택된 전통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담겨 있으며, 저자는 이를 예수의 삶과 사역 중에 일어난 진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서가 신학적으로 해석된 역사를 담고 있다는 생각은 특히 중요합니다. 각 복음서의 독특한 강조점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이는 20장 30절과 31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청중이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특정한 것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이 단순히 역사적 자료를 축적하여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삶에서 선택된 일화들을 각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제시함으로써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이야기들은 예수의 믿을 만한 말씀이 지닌 신학적, 실존적 함의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출처 비판과 공관복음서 문제. 복음서를 대충 읽어봐도 그 유사성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유사성을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합니다. 처음 세 복음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서문에 대한 저자의 성찰은 순진한 경건주의적 답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누가가 이전에 기록된 복음서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복음서 중 1:1은 초기 제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관복음서 문제에 대한 이 간략한 논의는 중요합니다.

공관복음서 기원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복음서의 문학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론과, 반대로 복음서들 사이에 어느 정도 문학적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 문학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스러운 전승의 구전 전승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복음서들이 문학적 차원에서 서로 차용할 필요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전 전승을 개별적으로 편집했다는 점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공관복음서들 간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는 공관복음서의 일치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으로 보입니다. 공관복음서의 일치에는 때때로 확장된 구절의 동일한 표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문학. 상호의존성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활용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문학적 상호의존성을 고수해야 합니다. 현대에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부들에게 주장했듯이, 복음서의 정경 순서가 문학적 의존성의 순서를 나타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최근에는 마태복음의 우선 순위 에 대한 교부들의 접근 방식이 소위 그리스바흐 가설로 다소 수정되었는데, 이는 서구 사회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마태 복음의 우선권을 고수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의 합의는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의 우선권을 지지합니다. 마가 복음과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복음은 마가 복음과 예수의 어록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Q라는 또 다른 가설적 자료의 독립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관점은 때때로 두 자료설로 알려져 있지만, 마가 복음을 통해 네 자료설로 발전했으며, 마태 복음에는 M, 누가 복음에는 L이라는 가설적 자료가 추가로 존재합니다.

이 강의의 입장은, 마태복음에 대한 서사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지, 앞으로 설명할 다큐멘터리 가설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사 비평. 공관복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확실성에 가까운 어떤 것에 도달하는 것의 유용성과 출처의 원자화 경향을 고려합니다. 비평 연구들은 서사 비평이라고 흔히 알려진 또 다른 접근 방식, 즉 문학적 방법을 채택하게 했습니다. 서사 비평은 각 복음서를 전체로 보고, 신학적으로 각 복음서의 부분들을 소위 가설적 출처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비교함으로써 의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파웰은 그의 저서 『서사 비평』 (Narrative Criticism)에서 복음서를 이처럼 읽기 위해서는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독자가 알게 되자마자, 그리고

본문이 독자가 안다고 가정하지 않은 모든 것은 잊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의 책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독교 공동체의 교화를 위해 기록된 신학적으로 해석된 역사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적절해 보입니다. 복음서가 다른 자료들처럼 이전 복음서 위에 덧붙여지는 덧입힘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이 공관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전승의 역사를 밝히는 데 몰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복음서가 신학적으로 해석된 역사라는 장르와 성경으로서의 정경적 기능을 고려할 때, 교회적 맥락에서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는 서사 비평이 자료 비평보다 훨씬 더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이 주석은 서사 비평적 연구로 진행될 것이다. 자료 비평적 측면의 모든 내용은 때때로 언급될 것이다.

문학 비평 일반, 특히 비평의 약점은 문학 자료의 역사적 언급이 핵심을 벗어난 것으로 여겨져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복음적 맥락에서 연구할 때는 문학 자료가 해석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복음서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서사 비평적 접근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드리와 해링턴 같은 일부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개요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노트를 참고하시고, 제가 4페이지에 제시한 세 가지 접근 방식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개요에서 마태복음은 종종 연대기적, 지리적 분석으로 분석되어 왔는데, 마가복음 분석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애 사역,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날들, 즉 그분의 슬픔, 배신, 체포, 십자가 처형,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파송을 다룹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전기적 접근 방식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은 서사와 담론 블록을 번갈아 배치하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패턴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구조에 대한 두 번째 접근법은 4장 17절과 16장 21절의 "그때부터 예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구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잭 킹스버리와 그의 저서, 그리고 데이비드 바우어가 마태복음 구조에 대해 취한 접근법입니다. 그들은 4장 17절의 두 가지 중요한 시점, 즉 세례자 요한의 체포 기록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을 "그때부터 예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의 공생활은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셨다"(16:21,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직후)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마태는 그때부터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6:21 의 4:17 두 구절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기법이라기보다는 전기적 표식에 가깝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예수의 생애와 사역의 단계에서 일어난 예수의 전기에서 핵심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마태복음의 구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강조된 연대기적 지리적 접근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서사와 담론을 어떻게 번갈아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 번째 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입장은 우리 강의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태가 오랫동안 지적했듯이 주요 서사의 끝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는 구절로 표시되는 서사와 담론 자료의 독특한 병치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마태의 구조적 패턴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이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마태는 모세 오경에 있는 모세의 다섯 권의 책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예수의 다섯 권의 책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형식을 바탕으로 한 개요는 4페이지에 있는 보충 자료에 나와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충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4페이지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뿐 아니라, 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구분 짓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주어진 모든 구절이나 에피소드에서 마태복음은 사건을 담고 있고, 마가복음의 서술적 세부 사항을 압축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확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의 독특한 담화에서 나타나는데, 물론 5장에서 7장까지에 나옵니다. 4페이지 개요의 2B절에서 선교에 대한 담화 3절을 주목하세요. 10장, 비유에 대한 담화, 4B절 13장, 왕국에서의 관계에 대한 담화, 18장, 개요의 5B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 산 담화 또는 예수의 종말론적 담화라고 불리는 담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의 이 종말론적 담화 후에, 예수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이것은 중요할 수 있으며, 그가 이것이 예수의 마지막 공개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모든 말씀"은 아마도 앞의 네 가지 설교와 24장과 25장에 있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 4페이지의 개요를 살펴보세요. 페이지 하단 절반에 있는 "예수께서 마친 후"라는 구절을 찾아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마태복음의 각 부분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곧 1B 강의에서 뵈겠습니다.